



KIA 윤석민

4관왕 윤석민 “MVP 노터치”

20년만의 대기록... 오승환·최형우·이대호와 경쟁
 신인왕 후보엔 배영섭·임찬규... 7일 기자단 투표

‘4관왕’ 윤석민, 이번에는 MVP다. 2011시즌 프로야구 마운드를 점령한 KIA의 투수 윤석민이 7일 MVP 시상식에서 5개의 트로피를 노린다. 다승왕·방어율왕·탈삼진왕·승률왕 그리고 MVP 트로피까지 모두 5개다. 경쟁자는 삼성 우승의 주역 최형우·오승환(이상 삼성), 거인 타선의 핵심 이대호(롯데). 최형우는 올 시즌 30홀런으로 118타점을 쓸어담으며 홈런·타점·장타율 타이틀을 챙겼다. 최형우에게 홈런왕 타이틀을 내준 이대호는 0.357의 타율로 타격·최다안타·출루율 1위를 가져왔다. 최형우와 이대호가 타격부문 1·2위를 다투며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 MVP 싸움은 ‘다승왕’과 ‘구원왕’의 대결양상이다. 올 시즌 54번의 등판에서 57이닝을 소화한 오승환은 0.63의 방어율로 47차례 뒷문을 틀어막으며 세이브 1위에 올랐다. 여기에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이 되면서 우승 프리미엄까지 받았다. 하지만 ‘4관왕’ 윤석민의 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윤석민은 올 시즌 172와 3분의1이닝을 책임지면서 2.45의 방어율로 17승 고지에 올라 방어율왕과 다승왕을 차지했다. 3차례 완봉승도 장식했다. 넥센과의 경기에서는 프로통산 115번째 무사사구 완봉승을 기록했고, 우승팀 삼성을 상대로 1피안타 완봉승도 올렸다. 탈삼진 부문에서도 150개를 기록한 특급 용병 니퍼트(두산, 주키치(LG))를 28개차로 따돌리면서 ‘트리

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승률(0.773) 역시 1위를 달리며 ‘국보급 투수’ 선동열에 이어 20년만의 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선발진의 붕괴 속에서도 팀의 4강행을 이끈 윤석민은 포스트시즌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SK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나선 윤석민은 9회까지 3피안타 1실점의 완벽투로 준플레이오프 역사상 5번째 완투승의 주인공이 됐다. 팀의 1차전 승리를 이끌었던 윤석민은 KIA가 준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몰리자 4일만에 자원등판에 나서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줬다. 윤석민은 개인성적은 물론 에이스로서의 만점활약을 하며 MVP로서 손색없는 2011년을 보냈다.



삼성 오승환

신인왕 싸움에서는 삼성 타자 배영섭이 LG 투수 임찬규보다 우위에 서었다. 올 시즌 33개의 도루(3위)에 성공하며 삼성의 기동력을 책임진 3년차 중견수인 배영섭은 손등 골절 부상을 딛고 한국시리즈에 출전, 결승타를 때려내며 팀 우승의 한 축을 담당했다. 고졸 투수 임찬규는 데뷔 첫해 9승 7세이브를 기록했지만 4.46의 높은 방어율과 팀의 4강 탈락으로 신인왕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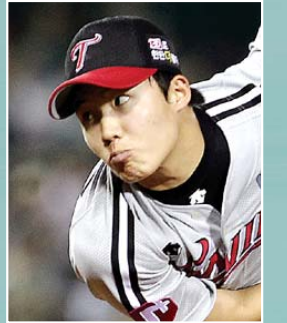
삼성 최형우



롯데 이대호



삼성 배영섭



LG 임찬규

한국시리즈 우승 삼성 라이온즈 아시아 야구 정복 나선다

韓·日·대만·호주 챔피언전 출전

5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복귀한 삼성 라이온즈가 아시아 야구 정복에 나선다. 한국시리즈 챔피언인 삼성은 오는 25일부터 대만에서 일본, 대만, 호주 등 4개국 프로 리그 챔피언이 참가하는 아시아리그에 출전한다. 2008년 이후 3년 만에 부활한 아시아시리즈는 4개 팀이 예선 풀리그를 펼친 뒤 1, 2위가 결승에서 우승컵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팀은 약 5억5000만원의 상금을 거머쥌 수 있다. 삼성은 2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호주의 퍼스 히트와 아시아시리즈 첫 경기를 치른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인 일본팀과 대결한다. 일본은 지난 3월 대지진 여파로 예년보다 2주가량 늦게 시즌을 시작한 탓에 아직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챔피언인 시리즈에 진출한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삼성이 배출해낸 임창용은

진정탑과 적으로 대면하게 된다. 삼성은 27일에는 장소를 옮겨 타이완에서 대만 우승팀인 통이 라이온스와 예선 풀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하루 휴식 후 29일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결승전에는 예선 1, 2위가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린다. 삼성은 2007년까지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로 불리던 이 대회에 2005년과 2006년 연속 출전했지만 각각 2위와 3위에 머물렀다. 2005년 시작해 2008년을 마지막으로 개최 중단될 때까지 4차례 아시아시리즈에서 우승컵은 모두 일본팀이 가져갔다. 한국팀으로 첫 우승에 도전하는 류중일 삼성 감독의 의욕도 뜨겁다. 류 감독은 한국시리즈 우승 후 “아시아시리즈 우승도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성은 6일 일본 오키나와에 들어가 몸을 만든 뒤 23일경 대만에 입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강으로 불리는 삼성 마운드에는 다소 전력 누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외국인 선발 ‘원투 펀치’인 더그 매티스와 저스틴 저마노가 피로 누적을 사유로 아시아시리즈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KIA 전지훈련... 5톤 트럭 짐 수송작전

선수단 80명 일본으로 떠나

1일 KIA의 ‘짐수송 대작전’이 전개됐다. KIA 타이거즈가 2일 새 사령탑의 체제 아래 첫 전지훈련을 떠난다. 2일 오전 비행기로 일본 미야자키로 떠나야 하는 만큼 KIA 선수단은 하루 앞서 인천에 짐을 풀었다. 선동열 신임 감독의 ‘육식가리기’ 작업을 위해 이번 마무리 훈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구성됐다. 80명에 달하는 대규모 마무리 훈련 선수단이 이동을 하면서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5톤 트럭까지 동원해 짐을 싣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선수단은 이날 오전 훈련을 소화한 뒤 오후 5시 인천으로 떠났다. 짐수송 작업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선수단 수가 늘어나면서 짐꾸러미도 산더미가 됐다. 개인 장비를 한데 묶어 포장하고 개인 짐가방과 야구공 박스, 의약품 등을 트럭



KIA 선수단이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위한 짐을 트럭에 싣고 있다. 선수단은 2일 오전 훈련지인 일본 미야자키로 떠난다.

에 싣느라 신인급 선수들은 물론 현장 프런트까지 총동원됐다. 선수단은 1시간 가량의 작업 끝에 5톤 트럭 빼곡히 짐을 싣을 수 있었다. 힘겹게 인천행 버스에 오른 선수단은 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2차 짐수송 대작전을 벌여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편 마무리 캠프조에 편성됐던 최경환 코치가 1일 개인사정으로 코치직에서 물러났고, 신동수 코치는 광주에 잔류한다. 또 박진영·유병걸·차정민·유용목·장지환·전은석 대신 김동훈·박세준·윤완주·김중문이 전지훈련에 참가한다. /연합뉴스

“맨시티 참패 기억 씻어냈다” 맨유 박지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뛰는 박지성(30)이 에버턴 전 승리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дер비전 참패의 기억을 씻어냈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은 1일(한국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과 지역신문인 맨체스터이브닝뉴스 등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맨유가 맨시티전 패배를 잊고 다시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 에버턴전 승리가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맨유는 지난달 23일 맨시티와의 정규리그 9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2분 조너선 에반스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져 후반 막판 소나기골을 내주고 5골 차 완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울더스태드온과의 칼링컵 16강전과 지난 주말 에버턴과의 정규리그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며 다시 분위기를 다잡아가고 있다.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출전해 승리에 일조한 박지성은 “에버턴과의 원정경기는 언제나 어렵지만 팀이 맨시티전 패배를 털고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성은 이어 “이제부터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미엔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프 무상점검
- 타이어알,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퀴방향,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엑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 자동차터 종간사거리(20분길)